

# 농업인 친화기업 농협케미컬 익산 투자

### 경영효율성 위해 단계적으로 1000여억원 대규모투자 진행 키로 농협 협력업체 등 추가투자 예상 따라 산단 분양에 긍정적 작용

전북농협은 16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장,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농협케미컬 이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케미컬의 제8일반산단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농협케미컬은 익산 제3일반산단 110,270㎡ 부지에 2023년까지 본사와 생산설비 통합 이동을 통해 노후화된 대전공장(1978년 준공), 안산공장(1986년 준공), 대전물류센터 등 사업장을 집적화하고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1,000여억원의 대규모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총 300여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이로써 제3일반산단 분양률은 62%를 넘어서게 됐고 향후 공장 건립 및 가동 시 고용, 물류 등 직·간접 유발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협 협력업체 등 연관 기업들

의 추가 투자도 예상됨에 따라 산단 단지 분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56년 설립,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이한 농협케미컬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지분 100%)로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수수자재인 수도용, 원예용 작물보호제를 생산·보급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화학 전문회사이다.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 1801억원, 영업이익 110억원, 당기순이익 83억원을 기록했으며, 현재 2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농업인 친화적 작물보호 전문기업이다.

또한 농협케미컬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새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 기부금 지원, 폭설피해 농가 지원, 일손이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자매결연 농촌지역 영농작업 지원 등 농업인과의 상생 추구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농업인의 높은 신뢰 속에서 안정적인 판로와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매년 매



전북농협은 16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장,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농협케미컬 이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케미컬의 제8일반산단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산물의 적정 생산 및 농가 지원을 위한 제품 가격 인하, 생산시설 노후화에 따라 수익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협케미컬의 통합 이전은 전북도의 300명의 일자리 창출과 700여명의 인구유입, 약 10억 원 세수입 등 전북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케미컬의 사업장 통합, 생산성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갖춘 만큼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와 전북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환영사에서 “농협케미컬의 대규모 익산 투자를 결정해 주신 김병원 회장, 이근 대표 등 숨은 공로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지역 농업인과 함께 상생을 통하여 농협케미컬이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익산=우병희 기자

## 대학생 대상 '취업 에너지 비전(BE·電) School'

### 한전 전북본부,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취업 지원 행사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은호)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도내 대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업 에너지 비전(BE·電) School' 행사를 가졌다.

한전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김제발전소 전기 저장 시스템과 고효율 전력 시설 센터에서 전력 설비 신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테마형 현장 교육 기회를 가졌다.

이번 참석자들은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 20명과 함께 취업 노하우와 한전의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취업 카운슬링과 멘토링 행사를 함께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날 참석자들은 “정은호



본부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평소 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전은 향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취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축하는 자세로 준비해 입사, 한국전력의 대들보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서남상의, 관할지역 100개 기업체중 58곳 '여름휴가비 지급계획 없거나 미정'

정읍, 김제, 고창, 부안 기업체 100개 가운데 58곳은 경기침체로 인해 직원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는 관할지역(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있는 1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계휴가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체의 92개 기업이 여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휴가 일정과 관련하여는 7~8월중에 한다는 업체가 70개로 가장 많았으며, 휴가기간은 3일이 52개 업체, 4~5일 한다는 업체는 48개로 조사됐다.

휴가비 지급여부와 관련하여는 지급한다는 업체가 42곳, 지급하지 않는다는 38곳, 미정 20곳으로 각각 조

사했으며, 지급을 하지 않거나 미정인 업체 대부분이 휴가비가 연봉에 포함되거나, 경기침체의 이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비 액수에 대해서는 20만원 이상 지급이 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5곳, 30만원 5곳, 20만원 미만 이 2곳으로 각각 조사됐으며, 휴가중 공장가동 유무는 중단이 62곳, 정상가동이 30곳으로 나타났다.

휴양소 운영여부와 관련하여는 응답 업체중 90개 업체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작년과 비교해 현재 체감경기를 묻는 질문에 84개 업체가 '나쁘다'고 응답했고, 16개 업체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종 대표자 간담회 성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3일 협회 회의실 (광주전남) '철근, 콘크리트의 회', (도내) '철근, 콘크리트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호남권 건설업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참석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등 건설업의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당경쟁에서 발생하는 저가 하도급 수주를 지양하는 등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철근 콘크리트의는 수주물량을 확대, 표준품셈의 합리적 개정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농협 농산물 로컬푸드 아중점 개장

### 동부권 소재 농업인들 신선 농산물 판매 전초기지로서 활약 기대

전주농협이 지난 13일 로컬푸드 아중점을 열었다.

개장식에 농협 하나로유통(대표이사 김성광)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재도) 등 농협인사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비롯, 시도 의원, 행정기관 산하단체장 등 2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김성광 농협 하나로유통 대표는 새롭게 시작하는 아중점이 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65만 전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처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했다.

로컬푸드 아중점은 전주농협에서 4

번째로 개점하는 매장으로 전주시 동부권 로컬푸드 수요 최적지에 위치하고 있다.

1층 배장은 약 140평의 규모로, 로컬푸드와 생필품을 동시 구매할 수 있도록 복합매장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 5일 임시 오픈 1일 평균 1천명의 고객이 찾고 평균 매출액 2,200만 원을 기록, 향후 전주시 동부권 소재 농업인들의 신선 농산물 판매의 전초기지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은 “경제사업 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이 행복할 전주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로컬푸드 사업은 우리농협이 꼭 해야 할 사업임을 명심 향후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팔아 주는 것을 목표로 로컬푸드 사업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농협상호금융 '1사1교 금융교육'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남원교에서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남원고등학교(교장 정명진)가 '1사1교 금융교육' 결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합리적인 금융마인드 및 금융습관형

성을 위해 금융회사와 인근 초·중·고교가 자매 결연을 맺고 다양한 금융교육을 하는 캠페인으로, 농협상호금융은 금융해택의 시금시대에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금융교육을 제공 다양한 지원을 했다.

이날 결연 협약에 따라 남원농협은 남원고 학생들에게 학교 방문교육, 점포 초청교육 등 금융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상호금융은 “농협 상호금융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아끼없이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2018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 봉사단(공동단장 은행장 임용택, 노조위원장 최강성)은 16일 덕진구 위치사랑의 교회에서 '2018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초복을 앞두고 전북은행 노동조합(주최) 전주지역봉사단(주관) 봉사활동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18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에

는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최강성, 전주시의원 김진욱,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황의옥) 등 참석했다. 이날 전주지역 목거어르신 및 소외계층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고,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최강성을 비롯, 노동조합 간부 전원과 푸드 봉사단 등 50여명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과일, 떡 등을 직접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